

# 완주군 로컬푸드 제2의 도약

### 농촌융복합산업지구 공모사업 4년 연속 선정 쾌거 30억원 투입... 생산·제조 등 연관산업 발전 도모

전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2019년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에 완주군 로컬푸드가 최종 선정되어 전국 최초로 4년 연속 선정되는 쾌거와 함께 국비 15억원을 확보했다. (관련기사 10면)

농촌융복합산업지구는 농촌의 1차와 2차, 3차 산업 자원을 활용해 융복합해 지역특화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전국 10개 지자체가 공모 신청하였고, 1단계 현장심사, 2단계 발표심사 등 전문위원 심사를 통해 전북(완주로컬푸드), 경남

(거창사과), 충남(청양구기자), 경북(영천포도) 등 4개소가 최종 선정되었다.

전북도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30억원(국비 15, 군비 9, 자담 6)을 투입해 완주 로컬푸드의 생산, 제조, 가공 및 관광 등 전후방 연관산업의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완주군은 지역자원 5대 품목(딸기, 생강, 감, 대추, 고구마)을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융복합 공동인프라 구축, 네트워킹 및

주체역량강화, 고부가가치 및 지역브랜드화 등 5개 분야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의 향토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새로운 상품개발과 특성화를 통해 농촌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농가소득증대와 농촌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전북도 최재용 농축수산식품국장은 "이번 농식품부 공모 선정을 계기로 완주 로컬푸드 사업이 지역농가, 로컬푸드 매장, 체험마을이 고루 성장하여 상생의 기반을 마련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으며, 특히 "삼락농정(三樂農政)인 '보람찾는 농민, 재밌는 농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국가안전대진단 현장점검 나선 김승일 행정부지사  
김승일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19, 20일 이틀간 도내 다중이용시설 및 급식사지 사업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 새만금 농·생명용지 5공구 매립지, 김제시로 관할 결정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8일 새만금 농·생명용지 5공구 공유수면 매립지를 김제시에 귀속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달에 열린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홍정선)의 의결에 따른 것으로 이날 회의에는 인근 3개 지자체(김제, 군산, 부안)도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관할 결정된 농·생명용지 5공구 매립지는 334ha(총 1,602ha)로 지난해 9월 매립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당초 지반이 부여된 지역은 제외하고 행정안전부에 관할결정을 신청한 지 7개월여 만에 결정되었다. 2017년 말에 매립이 완료된 농·생

명용지 5공구는 2020년 본격적인 영농준비와 내부개발에 필요한 지적등록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서는 관할결정이 시급하였으나, 군산과 부안이 당초 주장하지 않고 이견이 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방조제 소송을 이유로 반대해 관할 결정이 다소 지연되었다.

2016년 4월 산업단지 1·2공구의 관할이 군산시로 결정되는 것에 대해 김제시는 기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결정 기준과 새만금 내륙 매립지는 이미 만경강과 동진강의 하천 중심선으로 관할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기준이라는 대법원

의 판례를 존중하여 반대하지 않았다. 김제시는 이번 중앙분쟁조정위원회 회의시 군산시와 부안군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새만금 내륙 매립지 관할이 김제시로 결정되기를 희망하고 불필요한 반대로 새만금 내부개발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농·생명용지 5공구 관할이 결정됨에 따라 김제시는 지적등록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농업특화단지, 농산업을클러스터 등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산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 전북선관위, 부안수협조합장선거 투표 효력 이의제기 관련 투표지 검증

### 당초 개표결과와 차이 없어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13일 실시한 부안수협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20일 도선관위 회의실에서 투표의 효력에 대한 전체 투표지 4,515매의 검증을 실시한 결과 당초 개표시의 득표수와 검증시의 득표수가 일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투표지 검증은 나선자인 기호 1번 배중수 후보자가 투표의 효력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면서 재검표를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검증은 후보자측 참관인이 참관한 가운데 전체 투표지를 대상으로 ①전체투표지 계수 → ②후보자별 투표지 검증 → ③이의제기 투표지 처리 → ④위원 검열 → ⑤검증결과 공표 순으로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동안 진행됐다.

투표지 검증 과정에서 ▲정규의 기표용구를 사용한 것이 맞는지 의심스럽다 ▲어느 후보자란에 기표했는지

가 불명확하다 ▲이중 기표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후보자 및 참관인이 투표의 효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고도 위원회 위원회의에서 해당 투표지의 유효성을 결정했다.

한편, 지난 3월 13일 실시한 부안수협조합장선거 개표 결과 기호 1번 배중수 후보자 1,316표, 기호 2번 송광복 후보자 1,316표로 동수 득표가 나와 연장자인 송광복 후보자가 당선됐다. /김진성 기자

## 전북디자인센터 - 한국산업디자인협회, 경쟁력 제고 업무협약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김신재)와 한국산업디자인협회(회장 차강희)는 업무협약을 갖고 상호 공동발전과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20일 서울 퍼시스 광화문 센터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을 통해 각 기관이 보유한 자원의 활용방안과 상호협력 분야에 대해서 논의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이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여 실질적인 협력모델 및 공동사업 발굴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업무협약은 ▲지역 디자인산업 육성을 위한 정보·자료의 공유 ▲디자인 관련 공동 사업기획 및 정책발굴 ▲양 기관 간 인적 교류 및 상호협력 네트워크 구축 ▲기타 양 기관의 발전과 상호증진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북디자인센터는 전북테크노파크의 특화센터로 지역 중소기업 및 디

자인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 수행과 정책발굴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전북지역 디자인 진흥 거점이다.

한국산업디자인협회는 산업디자인 분야의 질적 향상과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해 1972년 설립됐으며, 현재 디자인 전문가, 단체 및 법인 등 약 800여명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전북디자인센터 유재갑 센터장은 "이번 업무협약체결은 상호이해 증진과 이를 통한 동반성장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북디자인센터 출범 초 기인만큼 양 기관의 인적 인프라를 적극 활용, 전북지역 디자인산업을 이끌어갈 중장기 로드맵 도출과 디자인센터 발전방안 모색 등을 통해 센터의 기반을 탄탄히 다져나가겠다"고 포부를 다졌다.



한국산업디자인협회 차강희 회장도 "이번 협약을 통한 양 기관의 공조체계구축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며 "협회가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 전문가 및 대기업 회원사 등 풍부한 네트워크 지원으로 전북지역 디자인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 포항 시민들이 정부 상대로 낸 소송 관심 집중

### 정부연구단 "포항 지진 지열발전이 유발... 자연 발생 아냐"

정부연구단이 20일 '2017년 11월 경북 포항 지진(리히터 규모 5.4)은 인근 지열발전소가 유발했다'고 결론지었다. (관련기사 6면)

대한지질학회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 지진은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이런 정부연구단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열발전은 땅을 4~5km 파 물을 주입한 뒤 땅의 열로 데워 발생한 증기로 터빈을 돌린다. 물을 고압으로 발사하는 데다가 물을 넣고 빼내는 과정에서 지반이 약해지고 단층에 응력이 쌓여 지진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연구단장인 이강근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조사 결과 지열 발전을 위해 실시한 수리지극이 작은 규모의 지진을 유발했다"면서 "그 영

향이 시간이 지나면서 본진의 진원 위치에 도달했고, 누적되면서 포항 지진이 촉발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연 지진이 아니라는 얘기다.

이에 앞서 정부연구단의 조사에 함께 참여한 해외조사위원회도 "지열발전 전을 위해 주입한 고압의 물이 알려지지 않은 단층대를 활성화해 포항 지진 본진을 촉발했다"고 짚은 바 있다.

포항 지진은 2017년 11월15일 발생했다. 2016년 9월 경북 경주(규모 5.8)에 이어 한국 지진 중 두 번째로 강력했다. 118명의 부상자가 생겼고 845억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포항 지진의 원인으로서는 그동안 '인근 지열발전소에 의해 유발됐다'는 의견과 '자연 발생했다'는 의견이 대립해왔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4월 이진한 고

려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교수 등이 '포항 지진은 지열발전을 위한 물 주입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Science)를 통해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포항 지진과 지열발전의 상관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연구단을 작년 3월 구성했다. 지금까지 약 1년간 정밀조사를 진행해왔다.

한편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에 의해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포항 시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포항 시민들은 '포항지진법시민대책본부'를 결성, 지열발전을 주관하고 예산을 지원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뉴시스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